

주간 농업농촌동향

2015. 10. 05. Vol. 40

■ AI 특별방역대책 총력 등

■ 수자원의 체계적 통합관리 방안

■ 2015 고령자 통계 등

■ 농업시설 폐자재 수거 실태와 개선 방안

농정이슈 국내 언론 동향

AI 특별방역대책 총력

- [농식품부,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및 방역 추진] 광주 및 전남 소재 4개 시·군·구에서 총 7건 AI 발생에 따라 특별방역대책 마련

AI 발생현황

접수일 (발생일)	발생지역	축 종	사육수수 (살처분)	검사결과	살처분
9.14.	전남 나주	육용오리	8,200	양성(9.18)	9.16
9.14.	전남 강진	육용·종오리	8,473	양성(9.18)	9.16
9.16.	전남 담양	닭오리	28	양성(9.21)	9.19
9.16.	광주 북구	닭오리	10	양성(9.21)	9.19
9.22	광주 광산구	오리	10,300	양성(9.27)	9.23
9.20	전남 담양	오리	11	양성(9.27)	9.26
9.21	전남 강진	닭오리	60	양성(9.28)	9.26

- (발생원인) 가금 중개상인 소유 계류장에 남아 있던 바이러스 전파된 것으로 추정
- (향후 전망) AI 바이러스 잠복기(21일) 고려 시 가금 중개상인과 역학적으로 관련있는 농가 등에서 AI 추가 발생 가능성

특별 방역대책 추진

- (취약농가/시설) 예찰 지속 실시 및 AI전파요인으로 추정되는 가금중개상인 방문 농가에 대한 일제검사 실시, AI판정 시 해당 전통 시장 내 생닭·생오리 가금류 판매시설 즉시 폐쇄조치
 - ※ 광주, 전·남북 소재 가금중개상인(68명) 방문 농가 등 약 200개소 선제적인 검사 (시료채취 : 9.30.~10.2., 정밀검사 : 9.30.~10.8.)
- (철새대책) 철새 이동에 대한 단계적 경보 발령, GPS 부착과 포획검사 실시, 철새군집지역 등 AI 발생위험 높은 지역은 중점방역관리지구 설정
- (위험도 분석) 「빅데이터 기반 AI 확산 위험도 모델」 지속 활용
- (농가 컨설팅 강화) 농가별 맞춤형 차단방역 컨설팅 실시

㉔ 농정이슈

- [구제역 특별 방역 대책] 2015.4월 이후 추가 발생 없으나 주변국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어 재발 우려 높은 상황

※ '15년 신규 발생국가 : 10개국(중국, 몽골, 대만 등), 동남아는 상시 발생

- (취약농가 관리) 구제역 재발 위험성 높은 시군과 NSP항체 검출농장 가축에 대해 일제 접종 추진

※ NSP(Non Structural Protein; 비구조단백질)항체 : 과거 구제역에 감염되어 일부 항체가 남아 있는 것

- (상시방역 관리) 가축 이동 시 '구제역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제' 도입(10.12.~) 등
- (소독관리) 매일 소규모 농가 상시 소독, 매주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
- (특별방역기간) 금년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

자료 : KBS·SBS·YTN·경상매일신문·광주일보·국제뉴스노컷뉴스·뉴스토마토·뉴시스·뉴스메이커·동양일보·머니투데이·시사제주·아시아투데이·아주경제·연합뉴스·이투데이·제민일보·제주도민일보·제주의소리·충남일보·충청일보·충청투데이·파이낸셜뉴스·헤럴드·인제주·헤럴드경제·한라일보(2015.09.30.) / G1·MBN·MTN·OBS·OESN·TV조선·강원일보·경기일보·경남신문·경남일보·광주드림·국제뉴스노컷뉴스·농촌여성신문·뉴스1·뉴스웨이·뉴스스·대전일보·대전투데이·동아일보·매일일보·서울신문·신아일보·아시아뉴스통신·아시아투데이·이데일리·연합뉴스·일요신문·쿠키뉴스·한국경제TV·한라일보·헤럴드경제·환경일보(2015.10.01.)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추석 명절 차단방역 이후, 특별방역대책 총력」(2015.09.30.)

㉕ 현장 체험형 스마트 팜 워크숍 실시

- [농식품부, 스마트 팜 확산 위해 체험형 워크숍 개최, 10.1.] 스마트 팜에 관심을 가지고 설치를 희망하는 농업인 대상

※ 스마트 팜 : 시설현대화된 온실·축사에 통신장비(센서, 제어기 등)와 환경관리 SW 설치·운영을 통해 스마트폰·PC로 농장 시설물의 원격·자동제어가 가능한 농장

- 스마트 팜 현장 적용사례 소개, ICT 융복합 시설장비 설치된 스마트 팜 체험, 관련기업 제품 전시 및 상담 등 진행
- (스마트 팜 적용효과)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 효과

※ △전남 화순 한울농장(토마토) : 생산량 40% ↑, 노동력 50% ↓, △세종 창조마을 스마트 팜(딸기) : 생산량 23% ↑, 노동력 39% ↓

- 스마트 팜 성과 확산 통해 수요 확대와 보급 속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

자료 : 뉴시스·아시아경제·이데일리(2015.09.30.)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스마트 팜 구경하러 오세요 현장 체험형 스마트 팜 연수회 열어」(2015.09.30.)

㉔ 농정이슈

□ 농산물 新유통 포스몰

- [농식품부, aT의 포스몰(POS-Mall)과 협업, 확대 계획] 산지직거래, 거점물류, 로컬 푸드 활성화 등 다각적인 활동 준비

※ POS(Point Of Sales) Mall : 소상공인 매장의 카드결제용 단말기에 주문, 결제, 배송 기능 추가, 직거래 통한 유통비용 절감 가능

- △유통구조 개선으로 지역 중소상인을 위한 **안정적인 식재료 유통채널** 확립, △판매부터 정산까지 안정적인 결제 프로세스 확립 통해 **실사용자의 만족도 개선**, △선결제 제도 정착을 통해 생산 농가의 고질적인 위험요소인 **외상거래를 개선**
- 추후 포스몰과 같이 **ICT 활용한 신규 유형 직거래 지속 발굴** 예정...**신유통 비중 16%까지 확대 목표**(2014년 14.6%)

자료 : 한국경제(2015.09.25.)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지역경제와 상생하는 농산물 新유통 포스몰 뜬다!」(2015.09.24.)

□ 국가식품클러스터,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 [농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계획 발표, 9.25.] 국가식품 클러스터 산업단지 내 제2공구 116천㎡

- **향후 450천㎡까지 단계적으로 투자지역 확대** 예정

※ 국가식품클러스터 전체 산업시설 용지면적 : 1,399천㎡(약 42만평)

- (**투자혜택**) △임대료의 75~100% 감면 및 50년간 부지 사용 가능, △법인·소득세 3년간 100% 면제, △지방세 15년간 100% 면제, △투자보조금 등 인센티브 제공, △국내기업에게도 일정기간 감면혜택 및 인센티브
- 체코 프라하의 골드, 미국의 햄튼 그레이즈, 웰스프링, 케냐 골드락인터네셔널, 중국의 차오마마, 위해자광생물과기개발 등 **외국인투자신고 완료 해외식품기업 입주 예정**
- 동북아 식품 시장 및 세계 식품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해외 식품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해지기를 기대

자료 : 뉴시스·디지털타임스·전자신문·아시아투데이·아주경제·연합뉴스·이데일리·파이낸셜뉴스·헤럴드경제 (2015.09.29.) / 국제뉴스·노컷뉴스·뉴스1·새전북신문·전라일보·전북도민일보·전북일보·주간무역·충남일보·한국농어민신문·환경일보(2015.09.30.) / 국제뉴스·농촌여성신문(2015.10.01.)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국가식품클러스터, 외국인투자지역 지정!」(2015.09.25.)

㉔ 농정이슈

□ 중간 크기 사과·배 공급

- [농진청, 작은 크기의 사과·배 품종 개발·보급] 핵가족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중간 크기의 선호도 증가

- (선호도 조사 결과) △사과…큰 과잉(300g)보다 중간 크기(250g) 가장 선호, △배 (일상소비용)…큰 과일(700g)보다 중간 크기(500g) 이하 선호

- 사과 6품종과 배 7품종 보급

- ※ 사과 : 아리수, 피크닉, 황옥, 썸머드림, 루비-에스, 데코벨

- ※ 배 : 황금배, 한아름, 스위트스킨, 조이스킨, 스위트코스트, 소원, 솔미

- 꺾지 않고 먹을 수 있어 편리함을 추구하는 소비자 요구 충족, 나들이용·기내식·단체급식용 활용 가능

자료 : BBS·노컷뉴스·뉴스1·뉴스토마토·뉴시스·메디컬투데이·서울경제·신아일보·아주경제·연합뉴스·이투데이·일요서울·전라일보·전북도민일보·충청일보(2015.09.23.) / 국제뉴스대전일보·안동MBC·환경TV·환경일보(2015.09.24.) / 농촌여성신문(2015.09.25.) / 아시아투데이·파이낸셜뉴스(2015.09.26.) / YTN(2015.09.29.) / 서울신문·중소기업뉴스(2015.09.30.)

참고 : 농진청 보도자료_「꺾질째 먹는 중간 크기의 사과·배 보급 나선다」(2015.09.23.)

□ 수확철 농기계 교통안전 수칙 발표

- [농진청, 농기계 교통안전 수칙 발표] 농기계 도로주행이 잦은 수확철 맞아 차량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 당부

- 수확철인 10월에 농기계 교통사고의 19% 발생, 운전자의 부주의/교통안전 법규 미준수가 대부분

- 농기계 교통사고 치사율은 16%로 자동차간 교통사고에 비해 6.7배 높음, 자동차 운전자 과실로 농기계 충돌하는 경우 농기계 운전자 과실사고에 비해 치사율 6배 이상 높아 방어운전 필요

- (안전수칙) △농기계 운전자…농기계에는 운전자만 탑승, 음주운전 금지, 농기계의 저속차량표시등과 같은 등화장치 반드시 부착, 주행 중 조향클러치 사용 금지 등, △차량 운전자…서행, 추월 시 경음기 등 반드시 사용, 안전거리 확보 등

자료 : 뉴스1·환경일보(2015.09.30.) / 뉴스웨이(2015.10.01.)

참고 : 농진청 보도자료_「농촌 지역 도로에서는 꼭 서행 하세요」(2015.09.30.)

정책브리핑 수자원의 체계적 통합관리 방안

자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5.09.25.)

☐ 추진 배경

-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자원의 체계적 통합관리 방안」 마련, 9.24.] 기후 특성 상 물 관리 여건이 어려우나, 관리체계는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실정, 효율적 관리 위해 방안 마련
 - 수자원 총량 1,297억 톤이나 26%인 333억 톤만 이용 (1인당 수자원총량은 세계 평균 1/6)
 - (관리 체계) 부처별 기능에 따라 분산별 관리 체계
 - ※ 국토부(수량업무), 환경부(수질업무), 농식품부(농업용수업무), 국민안전처(재난관리) 등
 - (내년 봄 가뭄) 금년 장마 강우량 적어 내년 봄 가뭄 대비 대책 필요
 - ※ 전국 누적 강수량 평년 대비 61%

☐ 주요 내용

- 기존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 강화
 - (시설 간 연계) 댐-보-저수지 상시 연계 통한 시설별 방류량 탄력적 조정, 4대강 보의 여유수량을 농업용수 등으로 활용 검토
 - (용수활용성 증대) 기존 다목적 댐의 용수공급·홍수조절능력 제고, 가용수자원의 효율적 활용 위해 댐 재평가 시행
 - (유수율 제고) 노후 수도관 현지조사 및 단계적 개량 추진
- 가뭄 대비 수자원 확충
 - (댐 건설) 댐건설장기계획의 중·소규모 댐 순차적 건설 추진
 - (수리시설 확충) 저수지, 양수장 등 농업용수 공급시설 지속 확충
 - ※ 용수시설이 확보된 논비율(현재 59% → '18년 65%), 밭비율(현재 15% → '18년 17%)
 - (대체 수자원 개발) 도서지역 등에 소규모 해수담수화시설 지속 추진 등

☐ 정책브리핑

○ 수자원정보 통합관리 및 공유 확대

- 가뭄 예·경보 시행을 위한 수자원정보센터 구축 등

○ 물 관리 컨트롤타워 설치·운영

- 국무조정실장 주재 ‘물 관리협의회’ 설치, 수자원 정책 통합·조정 및 물 관리 현안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 구축

☐ 내년 봄 가뭄 대처 방안

○ 다목적댐 긴급 운영

- 현재 한강, 낙동강, 금강의 9개소 댐 긴급 운영
- 금년 수준의 가뭄이 지속되더라도 댐 간 연계운영, 단계적 공급 감축 등으로 내년 우기 전까지 필요한 물 공급 가능

■ 주요 댐 저수율 ■

저수율 (’15.9.22)	한강(3)			낙동강(2)		금강(3)			섬진강(1)
	소양강	충주	횡성	안동	임하	용담	대청	보령	주암
% (평년대비)	44.6 (68.4)	41.5 (66.3)	30.4 (44.1)	33.6 (56.2)	32.2 (61.4)	30.9 (44.0)	37.7 (60.7)	24.0 (39.4)	44.7 (66.9)
단계	주의	주의	주의	주의	주의	주의	주의	심각	주의

※ (주의) 하천유지용수 감량, (경계) 농업용수 감량, (심각) 생활·공업용수 감량

○ 농촌 등 가뭄 취약지역 비상용수 확보

- (농업용수) 금년 말까지는 물 공급 어려움 없으나, 내년 봄 물 부족 우려…△양수장, 관정 설치 등 용수원개발 추진, △퇴적된 저수지 준설 통한 저수용량 확대

■ 전국 농업용저수지 평균저수율 현황 및 전망 ■

(단위 : %)

구분	전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15.9	44	43	65	42	30	27	45	57	67
’16.4	58	57	72	54	47	39	61	67	82

○ 보령댐 제한급수 및 금강물 활용 추진

- 현재 역대 최소 저수량 기록 중, 극심한 가뭄 시 내년 3월 댐 고갈 예상
- (대처계획) △용담·대청댐을 활용한 대체공급량 확대, △제한급수 추진 등

연구지원 2015 고령자 통계

자료 : 통계청(2015.09.24.)

총괄

- [통계청, 2015 고령자 통계 발표, 9.24.] 매년 노인의 날(10.2.)에 맞추어 관련 통계 제공
 -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진행
 - 2017년 고령인구 14% 예상됨에 따라 노인복지정책 요구

주요내용

- (고령 인구) 662만 4천 명(13.1%), 2060년에는 40%대 예상
 - 생산가능인구(15~64세) 5.6명이 고령자 1명 부양
 - (고령자 가구) 5가구 중 1가구는 노인이 가구주, 1인 고령자 가구는 7.4%
 - (고령인구 순위) 비율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가장 낮은 곳은 울산

고령인구 추이

(단위 : 천 명, %)

	추계인구	0~49세	구성비	50~64세	구성비	65세 이상	구성비
1990	42,869	35,906	83.8	4,768	11.1	2,195	5.1
2000	47,008	37,424	79.6	6,189	13.2	3,395	7.2
2010	49,410	35,080	71.0	8,878	18.0	5,452	11.0
2015	50,617	33,139	65.5	10,854	21.4	6,624	13.1
2020	51,435	31,117	60.5	12,234	23.8	8,084	15.7
2030	52,160	27,313	52.4	12,156	23.3	12,691	24.3
2040	51,091	23,872	46.7	10,718	21.0	16,501	32.3
2050	48,121	20,207	42.0	9,923	20.6	17,991	37.4
2060	43,959	18,372	41.8	7,966	18.1	17,622	40.1

연구지원

지역별 고령인구 비율

(단위 : %)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5	13.1	12.0	14.7	12.7	10.5	11.1	10.6	8.6	10.9	10.3	17.2	15.0	16.5	18.5	22.0	18.4	14.1	14.2
2019	15.0	14.3	17.9	15.2	12.4	13.0	12.5	10.6	10.3	12.0	19.4	16.7	18.0	20.0	23.3	20.6	16.2	15.8
2020	15.7	15.0	18.8	16.0	13.0	13.6	13.1	11.3	10.7	12.6	20.1	17.3	18.5	20.6	23.8	21.3	16.9	16.5
2025	19.9	19.1	24.1	20.6	17.4	17.3	17.0	15.8	13.5	16.5	25.1	21.4	22.2	24.5	27.6	26.0	21.5	20.4
2030	24.3	23.2	28.8	25.4	22.1	21.3	21.0	20.6	17.4	20.9	30.2	26.1	26.6	29.0	32.2	31.1	26.4	24.9
2035	28.4	26.9	32.7	29.8	26.1	25.2	24.8	24.7	21.3	24.8	34.8	30.5	30.9	33.3	36.8	35.9	31.0	29.4
2040	32.3	30.4	36.3	33.7	29.9	28.9	28.3	28.0	25.7	28.5	39.0	34.6	35.2	37.5	41.1	40.3	35.3	33.9

○ (보건) 사망원인 1위는 ‘암’ 종류별로는 폐암이 가장 높음

- (기대여명) 2013년 기준 65세 고령자 기대여명…남자 18.0년, 여자 22.4년
- (진료비) 고령자 진료비 전체 35.5%, 1인당 진료비 322만 원

사망원인 및 사망률 (65세 이상)

(단위 : 인구 10만 명당)

		1 위	2 위	3 위	4 위	5 위
연령 별	2010	악성신생물(암) (882.4)	뇌혈관 질환 (409.4)	심장 질환 (344.0)	당뇨병 (153.1)	폐렴 (127.6)
	2011	악성신생물(암) (847.8)	뇌혈관 질환 (381.1)	심장 질환 (361.2)	당뇨병 (155.4)	폐렴 (143.2)
	2012	악성신생물(암) (852.9)	뇌혈관 질환 (372.9)	심장 질환 (367.1)	폐렴 (166.4)	당뇨병 (163.0)
	2013	악성신생물(암) (836.6)	뇌혈관 질환 (353.0)	심장 질환 (335.6)	폐렴 (166.6)	당뇨병 (148.5)
	2014	악성신생물(암) (827.4)	심장 질환 (339.0)	뇌혈관 질환 (323.6)	폐렴 (177.5)	당뇨병 (136.1)
	남 자	악성신생물(암) (1,224.9)	심장 질환 (344.6)	뇌혈관 질환 (342.5)	폐렴 (209.2)	만성 하기도 질환 (158.7)
	여 자	악성신생물(암) (543.5)	심장 질환 (335.0)	뇌혈관 질환 (310.1)	폐렴 (154.8)	당뇨병 (129.7)
연령 별	10대	운수 사고 (4.8)	고의적 자해 (4.5)	악성신생물(암) (2.6)	불의의 익사 및 익수(0.6)	심장 질환 (0.5)
	20대	고의적 자해(자살) (17.8)	운수 사고 (6.0)	악성신생물(암) (4.1)	심장 질환 (1.5)	뇌혈관 질환 (0.7)
	30대	고의적 자해(자살) (27.9)	악성신생물(암) (14.7)	운수 사고 (5.9)	심장 질환 (4.2)	뇌혈관 질환 (3.0)
	40대	악성신생물(암) (48.6)	고의적 자해(자살) (32.4)	간 질환 (13.2)	심장 질환 (12.2)	뇌혈관 질환 (10.1)
	50대	악성신생물(암) (144.6)	고의적 자해(자살) (36.4)	심장 질환 (29.3)	간 질환 (26.7)	뇌혈관 질환 (22.1)

연구지원

- (경제활동) 65세 이상 고용률은 31.3%로 지속적 증가추세
 - 60~64세 고용률은 20대를 추월
 - (취업의사) 고령층 중 장래에 일하기 원하는 비율은 61.0%
 - (취업이유) 생활비 > 일하는 즐거움 > 무료해서 > 사회가 필요로 함

연령대별 고용률

(단위 : %)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64세	65세 이상	남 자	여 자
2000	58.5	60.1	72.5	76.4	66.5	53.0	29.4	40.3	22.7
2005	59.7	61.2	72.3	77.1	68.1	53.4	29.8	40.8	22.4
2010	58.7	58.2	72.0	77.8	70.9	53.7	28.7	39.5	21.2
2011	59.1	58.5	72.2	78.4	71.6	55.1	28.9	39.6	21.4
2012	59.4	58.1	72.7	78.3	72.2	56.1	30.1	40.7	22.6
2013	59.5	56.8	73.2	78.4	73.1	57.2	30.9	41.9	23.1
2014	60.2	57.4	73.9	79.1	74.2	58.3	31.3	42.1	23.5

- (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30.6%가 고령자
 - 7월부터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으로 수급자 증가 전망
 - 연금 수령 고령자 중 절반이 월 10~25만 원 정도 수령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65세 이상)

(단위 : 명, %)

	총수급자 (일반수급자)	65세 이상 수급자	구성비	남 자	여 자
2001	1,345,526	334,272	24.8	87,213	247,059
2005	1,425,684	367,658	25.8	93,995	273,663
2010	1,458,198	391,214	26.8	106,723	284,491
2011	1,379,865	378,411	27.4	104,901	273,510
2012	1,300,499	376,098	28.9	107,156	268,942
2013	1,258,582	376,112	29.9	110,189	265,923
2014	1,237,386	379,048	30.6	114,731	264,317

2015년 8월 국내 인구 이동

자료 : 통계청(2015.09.24.)

주요내용

- 전국 8월 인구 이동…이동자 수 62만 명, 전년 동월 대비 6.2% ↑
 - 시도내 이동자 66.9%, 시도간 이동자 33.1%
- 시도별 인구이동
 - 경기, 세종, 충남 등 7개 시도에서 순유입
 - 서울, 대전, 부산 등 10개 시도 순유출

■ 시도별 이동자 수 ■

(단위 : 명)

		이동자 수			
		전국	총전출	순이동	2014년 8월
전국		618,777	618,777	0	0
순유입	경기	166,985	157,204	9,781	5,181
	세종	7,111	2,584	4,527	2,561
	충남	23,065	21,272	1,793	41
	제주	6,602	5,423	1,179	828
	인천	39,893	38,781	1,112	9
	경북	25,701	24,985	716	2,83
	전남	20,383	19,830	553	-1,037
순유출	서울	128,717	141,628	-12,911	-5,663
	대전	17,798	19,585	-1,787	-722
	부산	38,816	40,553	-1,737	-785
	광주	18,135	19,172	-1,037	339
	대구	26,924	27,818	-894	-1,701
	전북	21,078	21,547	-469	405
	충북	16,199	16,518	-319	319
	울산	12,016	12,258	-242	158
	강원	17,140	17,282	-142	-341
	경남	32,214	32,337	-123	125

현장여론 농업시설 폐자재 수거 실태와 개선 방안

자료: KREI리porter를 대상으로 창의정보실 자체 조사

※ 본 자료는 연구원이 전국 시·군에 농업경영인 1명씩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KREI리porter가 보내온 농촌 현장 여론과 정책제언입니다.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전달한다는 취지로 가감 없이 요지만 정리하였으며, 연구와 정책에 활용되길 바랍니다. (현장의 소리 전문은 KREI리porter 사랑방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조사 개요

- 수집기간: 2015. 9. 1. ~ 9. 30.(총 16건)
- 수집대상: KREI리porter
- 수집방법: 온라인사이트, 이메일, 팩스, 우편 수집

□ 농업시설 폐자재(비닐, 철골 등) 수거 실태와 개선 방안

- 농업 폐자재 중 철골은 고물상이 전부 수거해 가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으나 멀칭 비닐은 불법소각 외에 별다른 처리방법이 없어 대부분 그대로 방치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의 지원으로 **마을에 분리수거장을 만들어 멀칭비닐과 비료포대를 분리배출하고 있으며 연 2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얻고 있음.** 환경보호와 마을 수입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거방안을 널리 확대하길 바람. <나종주, 전남 화순>
- 최근 시설재배의 확대에 따라 농업시설 폐자재의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비닐, 철골, 농약병, 부식된 농기구 등이 그대로 방치돼 농로를 가로막고 수질, 토양오염의 피해가 계속 되고 있음. 개선방안으로 **마을별 폐자재 수거함을 설치해 지자체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폐자재를 수거토록 하고 개인이나 단체의 수거실적에 따른 보상방안 마련이 필요함.**<최영호, 충남 부여>
- 재활용업체에서는 재활용 여부에 따라 밭 멀칭용 비닐은 kg당 최저가 50원, 시설 하우스용 비닐은 100원, 비료포대의 경우 250원을 돌려주어 **폐비닐은 비교적 수거가 잘 되는 편이나 보온커튼, 차광망, 예인선 등 재활용이 어려운 폐자재는 돈을 지불해 폐기물처리업체에 맡겨야 해서 불법으로 소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시설보조사업이

㉔ KRE리포터 현장여론

점차 확대되는 만큼 시설 설치 시 투입되는 자재의 폐기처리비용까지 포함해 지원 해주면 폐자재 수거 및 처리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봄.<김경태, 경기 용인>

- 농촌 어디를 가나 농약빈병과 폐비닐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음. 대부분 폐자재 수거함이 전무하고 주기적으로 수거하는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라 소각하거나 방치하기 일쑤임. 어느 한사람이 잘한다고 깨끗해지지 않을 것이므로 **지자체에서 나서서 수거함을 설치하고 청소차량을 운행, 주민협력을 도모하는 방안을 마련해 깨끗한 농촌을 만들도록 앞장서야 할 것임.**<김용덕, 경기 남양주>
- 농업 폐자재를 마을 한 편에 모아두었다가 지자체에서 **수거일자를 지정해 일괄처리 해주길 요망함.**<김종근, 전남 순천>
- 우리 마을에는 폐비닐집하장을 설치하여 멀칭비닐을 수거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귀찮다며 밭 주변 공터에 버리거나 소각하는 경우가 많음. **재활용 여부를 구분해 배출하도록 지자체에서 관리해줄 것을 요망함.**<고정식, 제주 제주>
- 폐비닐을 곳곳에 방치하는 것은 실상 버릴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일 것임. **늘어나는 시설하우스와 그 폐비닐의 양은 현재와 같이 단순 소각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수거함만 만들어도 주민 스스로 환경의식을 갖고 분리수거를 실천할 것이라 생각함.** 수거함을 설치하고 지정된 요일에 청소차가 수거해 가는 것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임.<김현자, 경남 밀양>
- 농촌마을 대부분 **일반 생활쓰레기의 분리수거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으로 영농 폐자재 수거 및 보관시설이 전무한 실정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전연수, 경남 의령>
- 우리 마을은 시설하우스에서 나오는 폐비닐과 철골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고 있으며 가끔 들르는 고물상이 수거해 큰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음.<이현순, 경남 통영>
- 시설농업에 사용되는 비닐은 밭 멀칭용 비닐보다 수거 보상금액이 높아 수거율이 높은 편인 반면 **농약병이나 봉지, 멀칭비닐 등은 재활용 비율이 높지 않아 수거가 잘 되지 않고 있음.** 재활용 방안 마련이 폐자재 방치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임.<김인남, 경북 상주>
- 농촌에는 농산물 부자재, 쓰다 남은 퇴비, 농업용 비닐, 농약병 등 농촌쓰레기 방치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 개선을 위해서는 농지 한 편에 분리수거장을 만들어 음식물,

㉔ KRE리포터 현장여론

농산물 부자재는 따로 모아 퇴비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재사용이 가능한 자원을 분리 배출해 수거 인센티브로 재생활장지 교환 등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임.**<임충빈, 경기 안성>

- 농업 폐자재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100% 수거되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실정임. 특히 영월지역은 논보다 밭이 많고 시설하우스, 한우축사가 많은 편인데 산간지대이기 때문에 버려진 비닐과 농약병 등 폐자재 수거가 더욱 어려운 실정임.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마을에 방치된 폐자재 수거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람.**<유영조, 강원 영월>
- **서산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매분기마다 재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음.** 각 마을마다 부녀회에서 그동안 모아온 폐비닐, 농약병, 철골자재, 박스 등을 내놓고 그 수거 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주고 있으며 맛있는 음식도 차리고 마을 전체가 모이는 잔치의 모습으로 분리수거, 재활용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음. <유영순, 충남 서산>

㉕ 기타 농업·농촌 현장여론

- 부여지역은 8월 중순에 비가 조금 내린 뒤 한 달 동안 가물가뭄이 계속되고 있음. 한창 여물어야 할 **콩과 들깨, 각종 밭작물이 수분부족으로 말라죽고 김장채소의 생육이 부진해 농업용수는 물론 식수까지 부족해 가뭄대책이 절실함.** 봄부터 올해 계속되는 가뭄으로 장기대책 마련이 시급함.<최영호, 충남 부여>
- 최근 농촌에 확산된 ‘가시박’은 외래종 식물로서 뿌리 하나에 수많은 곁가지들이 하루에 2m씩 뻗어나가는 강한 잡초임. 호박잎과 같은 생김새, 맹독성의 가시가 달린 이 식물은 하루 이틀 사이에 개천이나 독을 뒤덮고 가로수를 모조리 감아 농촌에서는 골머리를 앓고 있음. **가시박 확산에 따라 생태계 교란, 농업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퇴치사업을 속히 진행해주기 바람.**<이길숙, 경기 안성>
- 보조사업이 많다보니 자부담으로 농사짓는 것이 바보스럽게 여겨져 너도나도 같은 품목에 같은 시설의 보조사업을 진행해 결국에는 과잉생산으로 소득은 커녕 계속해서 작목전환을 반복하는 실정임. **생산 중심의 보조사업이 아닌 스스로 경쟁력 있게 생산하고 그 이후 가공 및 판매, 홍보, 수출 등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변해동, 강원 홍천>

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대외협력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사오니 자료 활용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